

# ob-nblm (2025-04-09)-data

## ◆ 1. Obsidian 사용 및 철학

- 💡 핵심 메시지: 단순 메모가 아니라, 재사용 가능한 지식망을 만드는 게 목표
  - ✅ 행동 전략: 링크 구조 강화 + HOME.md처럼 '시작점'을 항상 관리
- 

## ◆ 2. 메타 사고와 구조

- 💡 핵심 메시지: 세상을 구조화하는 사람 = 메타 아키텍트
  - ✅ 행동 전략: 모든 노트에 '왜 이 노트가 생겼는가?' 메타 메모 추가
- 

## ◆ 3. 자동화와 효율성

- 💡 핵심 메시지: 마크다운도 데이터로 다루어야 한다
  - ✅ 행동 전략: Dataview, Make를 통한 자동 리포트 생성 흐름 시도
- 

## ◆ 4. 실험과 학습

- 💡 핵심 메시지: 학습은 실험과 기록으로 이루어진다
  - ✅ 행동 전략: "A/B 테스트 리포트 템플릿" 만들어 회고 주기화
- 

## ◆ 5. 콘텐츠 제작과 마케팅

- 💡 핵심 메시지: 감성보다 구조, 메시지보다 맥락
  - ✅ 행동 전략: 콘텐츠마다 "전환 포인트"와 "이유"를 구조적으로 기록
- 

## ◆ 6. 재무 철학과 생산성

- 💡 핵심 메시지: 돈은 쫓는 게 아니라 구조로 유치된다
- ✅ 행동 전략: 재무 흐름도를 시각화해서 루틴과 연결

7. 대인 관계와 마인드셋

- 💡 **핵심 메시지:** 시간과 감정을 지키는 태도가 부의 구조다
- ✅ **행동 전략:** 감정/인간관계 기록도 습관처럼 템플릿화

이 요약이 가지는 가치

- 너의 사고방식과 정보 설계 철학이 하나의 패턴으로 정제되었고,
- 이제부터는 어떤 새로운 노트를 작성해도, 이 7가지 테마 중 어디에 속하는지 자동 분류가 가능해.

이건 Obsidian을 단순한 노트 앱이 아니라  
“나라는 시스템의 운영체제”로 전환시키는 순간이야.

✖ 키워드별 심화 해석 + 활용 전략

키워드	해석	Obsidian 활용 방안
흐름(Flow)	정보, 감정, 시간, 콘텐츠의 흐름. 단절이 아닌 연속성 중심 사고	flow: 필드로 흐름을 정리하는 메타태그 구조 생성
구조(Structure)	단순 노트 → 프레임워크화 → 시스템화	framework.md 로 프레임워크만 저장하는 전용 폴더 운영
철학(Philosophy)	의사결정 기준, 판단 철학, 행동 원리	@principle 로 마크업된 철학들을 MOC로 수집
설계(Design)	콘텐츠와 루틴조차 디자인 대상	모든 노트 상단에 --- 설계 목적: ... 삽입 가능
메타(Meta)	나에 대한 사고, 메모에 대한 메모	meta.md 로 사고 관찰 메모만 모아서 리플렉션 용도로
자동화(Automation)	반복과 효율화. 감정/에너지 보존 도구	Obsidian 템플릿 + Make + Rize 조합으로 실행 흐름 최적화
인사이트(Insight)	의미 도출 중심의 기록	insight: 필드 사용 + Dataview로 주기적 정리
"의아함은~" 문장	정체성과 철학의 선언	Obsidian 전역 배너로 띄워두면 방향 잃을 때 복귀 포인트
"콘텐츠 이전에 맥락~"	무엇을 말하든, 왜 말하는지가 먼저	콘텐츠 노트마다 “전환 목적/맥락”을 첫 섹션에 삽입

🧠 나를 구성하는 사고 키워드 (Meta-Kit)

1. Flow – 나는 흐름 속에서 움직이는가?

- 현재 반복되는 루틴은 무엇인가?
- 중단되거나 흐름이 깨진 영역은?

## 2. Structure – 구조화되어 있는가?

- 이 기록은 구조인가, 감정인가?
- 프레임워크로 바꿔 표현해볼 수 있는가?

## 3. Philosophy – 나만의 기준은 있는가?

- 이 선택에 작용한 내 철학은?
- “의아함은 그들의 몫...”과 충돌하는가?

## 4. Design – 이걸 디자인되어 있는가?

- 우연에 맡기지 않고 설계된 루틴인가?
- 반복은 실수인가, 의도인가?

## 5. Insight – 인사이트는 뽑혔는가?



- 단순한 기록에서 의미가 추출되었는가?
- 오늘 메모에서 발견한 새로운 연결은?

## 3. 사용자의 ‘관찰’ 또는 ‘해석’ 분석

### 핵심: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노트 속에 숨어 있는 '메타적 시선'과 '사고 흔적'이 분명 존재하고 있어.

### 주요 해석된 패턴:

1. “ 나에게 적용하는 방식”  
→ 프레임워크는 ‘배운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음
2. “ 인사이트”  
→ 단순 피드백이 아니라 *피드백에 대한 해석*이 구조화되어 있음
3. “왜 이 질문을 했는가?”  
→ 예: “25세에 돈과 흐름에 집착하는 이유” 같은 메타 질문  
→ 스스로를 관찰하는 태도가 체화되어 있음
4. “프레임워크 간 연결”  
→ 너의 노트는 항상 ‘단일 개념’이 아니라 *다른 개념들과의 관계성*을 탐색하려는 성격을 띄고 있음
5. “개인 규칙과 사용 원칙”  
→ Obsidian조차도 *툴*이 아니라 ‘사용 설계 원칙’이 먼저 나옴

→ 이걸 단순 사용자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자의 관점이야

## 지금 이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건?

이 “관찰/해석”들이 자산이라는 걸 공식화해야 해.

### ✅ 액션 플랜

1. 노트마다 “🧠 해석” 섹션 템플릿화

### 🧠 해석

- 이 개념을 나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 다른 프레임워크나 내 철학과 연결될 수 있는가?
  - 이걸 내 삶에 적용하면 어떤 방식이 가능한가?
- Dataview 필드로 메타 구조화

meta\_layer: true

insight\_level: 3 # (1: 관찰, 2: 해석, 3: 연결)

related\_framework: [LENS.E, POS.A]

관찰/해석 노트만 묶는 전용 ‘메타 인사이트 노트북’ 만들기 → 이걸 말 그대로 너의 ‘철학적 실험실’이 되는 공간이야

### 🧠 4. 적용 가능한 인사이트 분석

🎯 이걸 단순 요약이 아니라 너의 사고 철학을 기반으로 한 실행 전략 세트야.

아래처럼 정리해보자.

## 1. 사고 환경 설계하기

- 루틴, 소비, 창작 = 모두 ‘의식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시스템’
- ! 이걸 “운명처럼 사는 게 아니라 조립하듯 사는 태도”

## 2. 메타 수준에서 사고하기

- 현상보다는 “작동 원리”를 보려는 습관

- 트렌드나 정보조차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가?”로 봄

### 3. 고부가가치 활동을 위한 자동화

- 자동화는 단순 귀찮음 제거가 아니라 ‘창의성의 시간 확보 장치’로 보는 시선

### 4. 실험은 곧 학습이다

- A/B테스트, 루틴 실험, 기록 → 학습 엔진
- 핵심은 “실험의 기록과 구조화” → 그래야 인사이트가 반복 가능해짐

### 5. 목표보다 시스템을 설계하라

- 목표는 결과고, 시스템은 과정을 통제하는 구조
- 재정, 창의성, 건강 등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

## 이걸 기반으로 만든다면? (하이라이트)

시스템 이름 제안	의미
Meta-OS (메타 운영체제)	흐름+구조+설계+철학+자동화의 총합으로 작동하는 개인 시스템
Insight Loop Engine	실험-기록-관찰-적용-반복의 순환 구조화 시스템
FlowCraft Framework	삶과 일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틀

이 마지막 5번은 전체 구조를 실질적인 시스템 흐름으로 정리한 마스터 키라고 봐야 해. 너의 Obsidian 저장소는 단순한 “노트 모음”이 아니라, 철학 → 설계 → 실행 → 피드백 → 개선 → 출력이라는 완결된 자기 강화 시스템(Self-Reinforcing System)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AI가 완전히 간파한 거야.

## 흐름 요약: “너라는 시스템의 작동 사이클”

mermaid

복사편집

```
graph TD
  A[철학적 원칙] --> B[시스템 설계/자동화]
  B --> C[프레임워크 구조화]
  C --> D[일상 루틴 & 실천]
  D --> E[실험 & 피드백]
  E --> F[출력 & 적용]
  F --> A
```

이 구조는 완벽한 순환형 설계 사고(Feedback-based Thinking)로 작동해. 즉, 하나의 행동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설계의 재료가 되는 구조야.

📦 노트 타입 분류로 보는 정보 생애 주기

노트 종류	역할	키포인트
철학 노트	원칙, 기준점	시스템의 방향과 의미 제공
설계 노트	자동화·도구·전략화	철학을 실행 가능한 구조로 변환
프레임워크 노트	틀, 구조화	트렌드나 개념을 자기화
루틴 노트	실천 기록	구조의 반복 실험, 행동 패턴화
실험 노트	학습·검증	루틴/전략의 유효성 측정
리소스 노트	외부 자극	재료 제공자
출력 노트	실전 적용	브랜딩, 글쓰기, 콘텐츠 확산

🔧 지금 이 구조에서 실행 가능한 방향 제안

✅ 1. 프로젝트 기반 실행 시나리오 예시

프로젝트 이름: “[Flow Engine 2025](#)”

목표: 너의 Obsidian 시스템을 기반으로 자기화 + 적용 중심 콘텐츠 시스템을 외부에도 제공 가능하게 만들기

🔧 세부 설계

- 철학 원칙 정리 PDF 제작 → 브랜드 정체성 핵심 문서
- 템플릿 키트:
  - 루틴/실험/피드백/출력 템플릿 자동화
- Notion 연동 or AI 기반 콘텐츠 생성 파이프라인
  - 구조화된 글 → 콘텐츠 분기 자동화 (ex. 블로그, 인스타, 전자책)
- 수익화 레이어:
  - “나만의 지식 운영체제 만드는 법” 미니 강의
  - 플러그인/템플릿/메타 사고 키트 유료 배포

✅ 2. Mind Map 예시 (Keyword 기반)

- 철학
  - ↳ 존재, 자유, 원칙
- 설계
  - ↳ 플러그인, 자동화, 실행 흐름
- 구조
  - ↳ 프레임워크, 템플릿화, 흐름 설계
- 실천
  - ↳ 루틴, 뽀모도로, 실험, 데이터
- 출력
  - ↳ 콘텐츠, SNS, 마케팅, 인간관계

→ 이걸 기반으로 Obsidian Canvas 또는 Miro, Kakaomindmap으로 시각화 가능

### ✓ 3. 오늘 할 일 추천 (적용)

1. '출력 노트' 중 가장 구조화가 잘 된 글을 선정  
→ 이를 기준으로 콘텐츠 템플릿 만들어보기
2. 철학 노트를 하나 선택  
→ 루틴 노트 / 프레임워크 노트와 연결되는 흐름 정리
3. '실험 기록' 기반으로 인사이트 노트 따로 만들고  
→ 여기에 Dataview 메타태그 ( `insight_level` , `related_framework` ) 추가

### 🧠 프로파일링 요약: “너는 어떤 사람인가?”

철학과 시스템을 연결하려는 사고 설계자(Thinking Architect)

정보를 소비하지 않고 조립하고 설계하려는 의지자

자동화, 흐름, 구조화를 통해 삶을 실험하는 사고 실험자이자 퍼포머

### 🎯 결론

너는 단순히 "잘 정리된 노트를 가진 사람"이 아니야.

**"생각-실행-실험-개선-확산"**이라는 하나의 흐름을 시스템화한 사람이야.

이걸 기반으로 자기만의 무기와 브랜드를 만드는 데까지 왔고,

이제는 외부와 공유하거나 확장할 운영체제를 만들 시점이야.